

정읍 신품종 쌀 '전주684' 맛있는 밥 인정 받다

식미 평가서 시민 10명 중 8명 '신동진과 대등하거나 더 좋다' 답변
농진청과 공동개발…재배 안정성·맛 우수해 대체 품종 가능성 활짝

정읍시와 농촌진흥청이 공동개발한 신품종 쌀 '전주684'가 지역 대표 품종인 '신동진'에 비해 밥맛이 대등하거나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는 지난 3년간 농진청과 협력해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연구 결과 5개 유망 후보품종 중 정읍의 기후와 토양 등 지역 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전주684' 품종을 최종 육성 품종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관내 4개소의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신품종의 재배 안정성을 검증한 데 이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밥맛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410명이 참여한 평가조사 결과 '기존 밥맛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8.5% 19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밥맛이 '더 좋다'는 긍정 평가는 35.6% 146명, '나쁘다'는 의견은 15.9% 65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의 입맛이 오랜 기간 지역의 주력 품

종이었던 '신동진'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과반수 이상이 밥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더 좋다고 평가해 고무적인 입장이다.

신품종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소비자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다.

시는 식미 평가 결과와 그동안 축적된 재배 안정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농진청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회를 거쳐 품종으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증받은 뒤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농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임시품종으로 농진청이 부여한 현재 명칭 '전주684' 역시 이달 중 농진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거나 좋은 밥맛을 상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새로운 품종이 기존의 우수한 품종을 대체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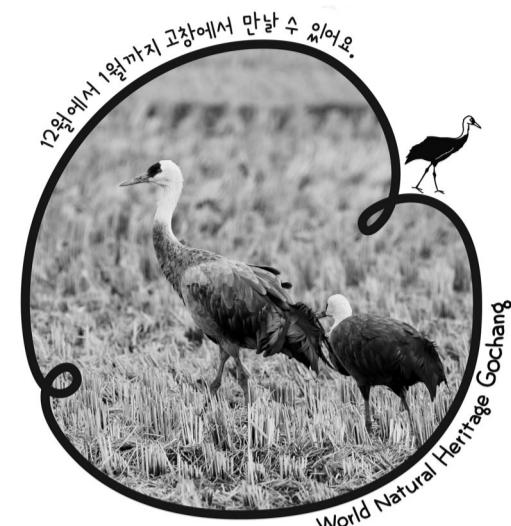


정읍시와 농촌진흥청이 공동개발한 신품종 쌀 '전주684'에 대해 정읍시청 구내식당에서 밥맛 평가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읍시 제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갯벌 이달의 새

‘흑두루미’

고창군, 생태계 보전 노력

고창군이 12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흑두루미'(Grus monacha)를 선정하고 겨울철 고창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흑두루미는 목과 머리 일부가 흰색이며 몸 전체는 검게 보이고 머리 꼭대기에 붉은 피부가 드러나는 독특한 외양을 가진 두루미류다.

국제적 멸종위기종(VU·취약종)으로 분류돼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이자 전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종이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몽골에서 번식하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다.

고창갯벌에서는 봄·가을 이동 시기에만 간헐적으로 관찰됐었지만 2021년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매년 월동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창갯벌은 흑두루미뿐 아니라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 등 다양한 겨울철새가 함께 찾는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풍부한 먹이 자원과 방해 요소가 적은 자연환경이 두루미류에게 매력적인 서식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계심이 강한 흑두루미가 안정적으로 월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창갯벌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흑두루미를 비롯한 보호 철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남원시, 전북 자원순환 실적 4년 연속 '최우수'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등 우수

남원시가 '2025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분리배출 환경개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위해 환경개선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22-202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전북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본격 도입해 쓰레기 발생량



을 줄이고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판매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고창군이 연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율로 판매한다. 구매 시 선할인 10%를 제공하고, 고창사랑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창사랑카드는 12월 17일 밤 12시 전까지, 지류상품권은 12월 12일 오후 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기준과 동일하게 10% 선할인, 월 3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

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며,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3월 전국 최고 수준인 2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했다"라며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방제

정읍시와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통합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읍시는 정읍국유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은 소성면 일대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는 공동방제에 나선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단기간 내에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 적기에 방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다.

특히 공동방제 지역으로 지정된 2904ha의 소성면 일원은 지난 2018년 11월 관내 최초의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이다.

최근 인접 사·군 경계까지 병해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성면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산림의 소유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주도해 통합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 산림의 소유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주도해 통합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감염목의 발생 위치부터 예찰 현황, 방제 진행 상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양 기관이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단 한 번의 누락도 허용해서는 안 될 만큼 촘촘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기관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라며 "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선제적인 방제체계를 확립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성면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산림의 소유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주도해 통합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옛 남원세무서 부지에 '행복기숙사' 건립

전북대 남원캠퍼스 학생·신혼부부 등 입주 가능…2029년까지 조성

남원시가 2027년 개교 예정인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학생과 청년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숙사 설계비 1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기숙사는 2029년까지 총 161억원을 들여 남원구도심의 옛 남원세무서 부지 6천500㎡에 125실(2인 1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옥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비, 도자전시관 건립비 등도 포함됐다. 이들 3개 사업에는 총 1012억원이 투입된다.

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하게 된다.

시는 기숙사 인근의 옛 남원보건소 부지 등을 추가로 개발해 이 일대를 캠퍼스타운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옥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비, 도자전시관 건립비 등도 포함됐다. 이들 3개 사업에는 총 1012억원이 투입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